

TV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section with columns for EBS1 and EBS2. Lis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section. Lists additional EBS programs.

여성 상반신 노출·흡연 등 방송사고 캠퍼해 전파

네티즌 눈썰미에 방송가 '몸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잇단 방송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장면들은 수초 분량에 불과하지만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SBS '8시 뉴스'는 지난달 31일 '햇살에 몸 맡긴 선 탄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여성의 상반신 주요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내보내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면은 캡처사진을 통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SBS는 결국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상편집 상의 부주의'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며 사과했다.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도 지난달 27일 그룹 DJ.DOC의 아라늘이 합창투모 다이내믹 듀오의

개교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여성그룹 투에니원의 씨엘 합성 사진을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의 사진은 화면 하단에 1초간 등장했다 사라졌으나 네티즌들은 이를 캡처해 각종 포털게시판에 올렸고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부주의로 율바르지 못한 사진이 나갔으며 사과글을 올렸다.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 '1박2일'도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은지원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을 내보내 비난을 받았다.

방송사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들은 편집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내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 방송사 예능 PD는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수가 없을 수 없다"며 "제작진이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실수를 발견하는 네티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의 실수만 네티즌들의 눈에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티벳궁녀'는 MBC 대하사극 '동이'에 등장하는 궁녀 엑스트라로 티베트여우를 닮은 독특한 외모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동이'에서 '티벳궁녀'는 2회에 걸쳐 등장했으며 총 등장분량은 10여초에 불과하다.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화제는 각종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대중문화평론가 탁현민씨는 "네티즌들의 활동은 규제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어차피 현행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면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이를 잘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19회 광주전남지역 광복절 기념 대회를 소개하는 글. 유령정석 2회전 4국 2보(20~41)를 소개하고, 흑 장장호 5단(주택관리사회)과 백 강창구 5단(주택관리사회)의 대국을 소개한다. 그림으로 정석 상황을 보여준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6월 25일 丁亥). 36년생 새로운 인연은 결국 허황된 상처만 남긴다. 48년생 생소한 길을 만나듯하니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60년생 후회는 없으리라. 72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형상이다. 84년생 시비가 따르고 신체적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Could you show me how to do it?' with English and Korean examples. 2. 'どちらが好(す)きですか' with Japanese and Korean examples. 3. 'HSK 한어수평고시' with Chinese and Korean examples. 4. '破竹之勢(파죽지세)' with Chinese and Korean examples.